

1920년대 동북아시아의 사회주의 연동과 조선 신문화운동*

: 천도교 잡지 『개벽』을 중심으로

정혜정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논문요약

1920년대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제국주의 대 무산자계급·피압박민족·피압박 국가라는 대립구조 하에 사회주의가 서로 연동되어 계급해방과 민족해방을 결합시켜나가는 추세에 있었다. 조선의 사회주의 수용은 191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문건은 1920년 천도교 잡지 『개벽』에서 비롯되었다. 개벽사의 중국특파원 역할을 했던 이동곡은 중국의 신문화운동과 사회혁명, 그리고 소비에트 러시아를 국내에 소개했고, 김기전과 이돈화는 조선적 처지와 상황에 맞게 중국 사회혁명과 러시아 사회주의를 변용시켜나갔다. 농민이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고, 노동자가 소수인 상황에서 조선의 계급운동은 농민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조선청년총동맹을 운동의 주체로 삼는 노농운동을 주창했던 것이다. 그리고 계급의식의 원천을 갑오동학혁명에서 찾았다. 계급의식이란 처음부터 혁명적 수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내천주의로 들어가 창조정신과 상호연대의 사상으로 형성되는 보편의식에 기초함을 강조했다. 또한 무산청년동맹인 조선청년총동맹을 조선의 운동주체로 삼았고, '사람성 무궁'에 뿌리박는 사상적 단결과 전체 인민의 의사에 의한 문화주의정치를 지향하였다. 그리하여 최후의 혁명은 조선에서 나올 것이라 했고, 그 혁명의 원리는 만인이 공명할 '개벽의 대이상(大理想)'에 있다고 보았다.

주제어: 동북아시아, 사회주의, 신문화운동, 천도교, 개벽, 계급의식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6A3A02079082).

I. 서론

20세기 초 동북아시아에 사회주의가 수용되었던 것은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저항과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러시아 혁명의 성공과 동북아시아 피압박민족에 대한 레닌의 지원은 동북아시아의 연동을 낳았고, 중국과 조선으로 하여금 제국주의에 대한 피압박민족의 대립구도 하에 민족혁명과 사회혁명을 결합시켜 나가게 하였다. 중국 사회주의 수용에는 쑨원(孫文), 천두슈(陳獨殊), 리따자오(李大釗)가 중심에 있었고, 북경대학의 강단과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통해 중국은 국민을 각성시키는 신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러한 중국의 혁명과 신문화운동은 조선에도 영향을 주었다.

3.1운동 이후 조선에 전개된 신문화운동은 자본제국주의 세계체제라는 정세 파악과 개조론/사회주의 등의 신흥사상에 따라 추진된 것이었고, 독립운동에서 사회운동으로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자리매김 된 것이었다. 이는 전근대적 봉건유습타파와 무산자를 위한 계급자유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신문화운동과도 연동되는 것이었다. 기존 연구는 천도교의 신문화운동을 민족개량주의, 비정치화, 실력양성운동 등 다양한 명칭을 붙여 그 성격을 규정해왔고, 계급의식의 민중투쟁과 분리시키거나 반자본주의사상의 문화정치운동에서 배제시켜왔다. 또한 조선청년연합회나 조선노동총동맹의 조직이 천도교와 연계된 민중문화운동이었지만 이것도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¹⁾

공식 상으로 조선에 최초로 마르크스 이론이 소개된 것은 1920년 천도교 잡지 『개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²⁾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나 가와카미 하

1) 예를 들어 익산지역에서의 1920년대 사회주의 운동은 청년회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뿌리는 천도교로부터 비롯되었다. 원도연, "익산지역 독립운동과 문화·언론운동," 『익산지역 독립운동과 3.1운동 재조명』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학술회의, 2019), p.52. 특히 사회주의 수용과 전개에서 중심역할을 한 임종환은 천도교 청년회 이리교구장으로서 조선청년총동맹 및 조선노동총동맹의 핵심인물이었다. 그는 1924년 전조선노동대회 의장, 1925년 조선노동총동맹 중앙집행위원을 지냈다. 임종환의 행적에 대해서는 오대륙, "익산지역 독립운동과 노동운동: 1920년대 익산지역 사회운동의 양상과 성격을 중심으로," 『익산지역 독립운동과 3.1운동 재조명』, 위의 책, pp. 99-118 참고.

2) 『아성』, 『대중시보』, 『신생활』 등의 잡지에서도 사회주의가 소개되었지만 시기적으로는 『개벽』이 가장 앞선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정태신의 글을 꼽을 수 있다. 그는 『개벽』 창간호(1920.6)와 3호(1920.8)에

지메(河上肇) 등 일본사회주의자들이 번역한 맑스나 엥겔스의 저작물이 번역 소개되면서 논의가 확산되어 나갔다. 또한 1921년 3월 『아성』1호에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을 위하여』 서문이 ‘유물사관요령기’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바 있고, 1921년 5월 대중시보사, 1922년 3월 신생활사, 1923년 9월에 창립된 민중사 등이 마르크스 이론을 더욱 집중적으로 번역한 바 있다. 그러나 천도교의 사례처럼 조선적 상황에 중심을 두어 맑시즘을 적용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은 드물었다. 물론 천도교의 주체적 수용은 정통, 혹은 교조적 맑스주의자들에 의해 비난받았고 사상논쟁에서 폭력으로까지 이어진 바도 있다.

1920년대 중국과 조선에 사회주의가 대세를 이루었던 것은 자본제국주의라는 세계체제와 무산자 피압박민족의 계급대립이라는 정세인식 속에서 민족해방, 무산자해방의 대안적 이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중국과 조선 모두 교육, 문화, 경제문제에 눈을 돌리면서 계급운동주체를 양성하려는 신문화운동 하에 놓여 있었다. 당시 신문화운동은 사회개조, 신사상의 확산, 민중 계급운동의 성격을 띤 정치적 운동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러시아 혁명에 고무되고, 중국의 신문화운동에 자극받으면서 1920년대 천도교 신문화운동이 어떻게 세계정세를 인식하고 동북아시아 사회주의 수용과 연동되어 민중운동을 펼쳐나갔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각각 “근대 노동문제의 眞義”, “막쓰와 유물사관의 一瞥”을 게재했다. 그리고 『개벽』 이전에 1920년 4월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간한 『독립신문』 등에서도 사회주의가 소개되었지만 이는 손문의 사회주의 운동이었지 마르크스 이론을 소개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을 통한 사회주의 수용에 대해서는 박종린, “1920년대 초반 자본주의 사상과 대중시보사 그룹.” 『한국사상사학』 47, 2014; 박종린, “1920년대 초 공산주의 그룹의 맑스주의 수용과 유물사관요령기.” 『역사와 현실』 67, 2008 참조.

II. 동북아시아의 사회주의 수용의 연동과 정체인식

조선의 사회주의 수용은 중국의 신문화운동과 사회혁명, 일본의 사회주의 이론 소개, 그리고 소련 코민테른 체제와 연동된 동북아시아적 현상에 속한 것이다. 특히 1910년대 후반부터 중국에서 활동했던 조선 독립운동가들은 중국의 사회주의 발흥을 주목했는데, 쑨원의 국민혁명을 사회주의와 연결지어 보았고, 이로부터 중국의 사회주의운동과 사회혁명의 가능성을 예측하였다.³⁾ 또한 중국이 사회혁명을 지향해 갈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러시아 혁명이 중국인의 진보적 각성을 촉구시킨 것, 일본 사회운동의 영향, 서구 국가체제에 대한 환멸, 국외 유학생들의 신사상 전파 등을 꼽을 수 있다. 당시 중국은 내부적으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신 중국을 건설할 운동의 기조로서 사회주의 사상 연구가 활발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민혁명에서 사회혁명으로 매진해나갔던 쑨원, 천두슈, 리따자오가 있었다. 1920년 당시 조선은 중국의 사회주의의 발전을 전망하고 있었고, 쑨원을 사회주의 제창자로서 인식하였다.

중국에 대하여 사회혁명은 가능하다. 중국에 대한 사회주의의 발전에 관한 고찰은 결코 무용의業이 아니다. 맹야의 배태 사회주의적 사상은 중국사상사상 新出者가 아니라 上古井田法과 如한 것이 곧 금일 사회주의의 취지와 似한 者라. 然하나 吾等이 논하라는 사회주의를 제창한 자는 손문이라.⁴⁾

또한 쑨원의 민족민권민생의 삼민주의는 자본 제국주의로부터 중국민족을 해방하는 민족주의, 중국 혁명에 부응하는 민권주의⁵⁾, 토지 균분과 자본절제의

3) 『독립신문』 1920년 4월 22일.

4) “中國과 社會主義.” 『독립신문』 1920년 4월 22일.

5) 쑨원이 말하는 민권이란 서구의 천부인권과는 달리 중국 혁명의 요구에 적합한 민권이다. 민권은 민국의 국민만이 향유하는 것이고, 오직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가 누릴 권리를 의미했다. 민국을 반대하거나 나라를 팔며 인민을 속여 제국주의나 군벌에게 붙는 사람에게는 권리가 부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권리를 주는 것은 민국의 파멸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49년 저우언라이(周恩來)는 국민과 인민을 구별하면서 “인민은 노동자계급, 농민계급, 소부르주아계급, 민족부르주아계급 그리고

민생주의를 표방한 것으로 조선에 소개되었다. 이는 국민혁명과 사회혁명을 함께 관철시키고자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당시 쑨원은 반제국주의의 연대를 형성하여 피압박 민족의 대 동맹을 이루자고 했고, 노농 러시아에게는 “피압박 민족을 구하라” 하였다.⁶⁾ 특히 쑨원은 “고(故) 레닌씨가 피압박 민족의 세계에 남겨둔 확실한 유산”을 거론하면서 “제국주의에 희생된 국민은 고 레닌씨의 유산에 의하여 진정한 자유를 획득할 것”⁷⁾이라 전망하였다.

국민당은 중국 및 착취를 당하고 있는 모든 나라와 함께 그들의 독립을 완전히 얻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믿노라. ... 나는 국민당에 부탁하기를 중국을 제국주의하의 반식민지 상태로부터 구출하고 ... 나는 소비에트 정부가 나의 나라에 주는 원조가 중단(不斷)할 것을 자신하여 의심치 안노라. 나는 友人 또는 동맹자로서의 노농사회주의공화국 연방이 독립인 중국과 상대하여 피압박 민족의 승리를 위하여 맹진하기를 熱望不已하노라.⁸⁾

쑨원은 국민당에게 중국을 제국주의하의 식민지 상태로부터 구출하고, 혁명의 목적을 관철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리고 노농 러시아에게는 중국 및 피압박 민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했고, 피압박 민족의 승리를 위하여 함께 맹진하자 하였다.⁹⁾ 당시 노농 러시아는 피압박민족을 지원했고 동북아시아 연대를 통한 민족해방의 의지를 불러일으켰다. 조선의 천도교 역시 자본세계체제의 정세판단과 그 저항의 대열에 동참할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근세 국가사회를 혁신할 대의를 품고 분투를 지속해 온 집단으로서 중국에 ‘국민당’이 있다면, 조선에는 ‘동학당’이 있다고 자부하였다.¹⁰⁾ 당시 천도교 청년단체

반동계급의 입장에서 벗어난 일부의 애국민주인사를 의미한다.” 박명규, 『국민인민시민』, 서울: 소화, 2009, p. 28 재인용)고 했다.

6) 손문, “내가 청제국을 부시고 새 民國을 세우기까지-손중산 선생의 자서전(손문학설 제8장에서).” 『개벽』 59, 1925, pp. 44-46.

7) 손문, 위의 글, p. 46.

8) 손문, 위의 글, p. 47.

9) 손문, 위의 글, pp. 46-47.

10) “조선의 동학당과 중국의 국민당(논설).” 『개벽』 59, 1925, p. 48.

였던 천도교청년총동맹은 현재의 명칭을 ‘동학당’으로 개칭하고자 했지만 금지당했다. 일제는 동학당이 바로 조선혁명당이고, 불온하다하여 개칭을 금했던 것이다.¹¹⁾

당시 조선에서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과 레닌의 불세비즘은 자본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사회혁명의 문맥에서 사용되었다. 상해 『독립신문』도 러시아 혁명을 대대적으로 소개했고, 소비에트란 노동자 정부, 사회주의 국가로서 민족자결, 노동자 자결, 생활평등, 계급타파를 주장하는 것이라 하였다.¹²⁾ 이는 1918년 「소비에트 공화국 헌법」 제5조에서도 “자본주의국가와 아세아의 노동자, 각 식민지, 기타 소국민을 노예로 하며 소수인의 이익을 꾀하는 개혁(改策)에 반항함”, 그리고 제8조 “각 민족이 俄國에 가입하는 여부는 그 각자의 결정에 맡긴다.”고 명시한 것과 같다. 또한 소비에트공화국 선전문에서는 “동양 수억만 민족이 오래 침략주의에 곤고(困苦)를 당하였으니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를 원조하여 그 자유를 얻게 하리라”하였다.¹³⁾

천도교는 이와 같은 중국과 노농 러시아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세계정세를 인식하고 사회주의를 수용했다. 중국의 국민혁명에서 사회혁명으로 가는 조짐을 전망하고, 러시아 혁명의 이후를 주시하며 또한 일본 사회주의자들이 번역한 마르크스의 이론을 번역·출판함과 동시에 이를 타진해 나갔다. 중국으로부터 인식되는 세계정세는 김기전의 요청에 의하여 주로 이동곡¹⁴⁾이 담당했고, 마르크스 이론의 번역과 소개는 일본 유학생들에게 주로 맡겨졌다. 이를 전담한 매체가 바로 천도교 잡지 『개벽』이었다. 당시 『개벽』지는 한중일 동북아시아를 비롯하여 서구까지 아우르는 세계인식의 통로였다.

『개벽』지는 창간호(1920.6)에 마르크스의 격언을 소개했다가 검열로 삭제된

11) 『중외일보』 1927년 4월 7일.

12) “노농공화국 각방면 관찰(續).” 『독립신문』 1920년 4월 15일.

13) 위의 글.

14) 이동곡은 이민창으로도 불려졌으며 신숙 등과 함께 천도교 대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파견되었던 인물이다. 그는 이돈화, 김기전과 더불어 천도교 청년회의 대표적인 인물로 북경에 주재하면서 잡지 개벽사의 특파원 역할을 맡았다.

바 있고, 정태신의 「근대 노동문제의 眞義」¹⁵⁾를 게재하여 노동자 계급운동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개벽』3호(8월)에는 「사회주의 약의」, 「맑스와 유물사관의 一瞥」을 게재했고, 『개벽』5호(10월)부터는 사카이 도시히코의 「사회주의 학설 대요(정백 번역)」, 「유물사관 요령기」 등을 연재했다. 「사회주의 학설대요」는 1925년 5월 단행본으로 묶여져 개벽사 발행으로 출판되었고 1929년 4월까지 5판을 찍었다. 또한 레닌의 글 「노동의 창조」를 『개벽』(1923.5)에 처음 소개하였다.¹⁶⁾

김기전은 「세계 사회주의운동의 사적(史的) 기술(1924)」이라는 글을 통해 세계정세가 자본군국주의의 침략과 압박, 그리고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무산자 및 약소민족의 대립구도임을 제기하면서 파리강화회의, 국제연맹 등에 우리가 얼마나 속아왔는지를 토론했다. 저들 서구 강국들은 결국 승냥이 세력이었고, 약소민족을 교묘하게 압박하며 착취하고자 하는 세력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생각하라, 大戰直後の 巴里會議, 그 회의의 主成分子인 英米佛伊, 그 나라들의 당시 당국자인 웰슨, 로이드쫘지, 크레만소, 또는 그들 侵略諸國의 現狀擁護策으로 일어난 國際聯盟-그따위의 일홈들은 얼마나 우리사람의 口頭에 올녓스며, 또는 얼마나 우리사람들의 속을 태웠는가. 아닌게 아니라, 그것은 확실히, 한, 勢力이다. 오늘의 형편에 잇서 그것은 물론 세력이다. 그러나 그 세력은 엄격한 의미에 잇서 사람의 세력은 아니다, 순수한 豺狼의 세력이다. 자기보다 無勢한 사람을, 無勢한 민족을 엇더케 하면 더 좀 교묘하게 압박하고, 더 좀 조직적으로 착취할가 하는, 즉 모든 弱小國民 모든 弱小民族의 피를 마시지 안고는 만족치 아느러하는 豺狼의 세력이다. 豺狼의 咬에서 取할 道는 오즉 그에게 피를 맞치거나 그러치 아느면 鐵을 주거나- 이 두가지 맞게

15) 정태신은 계급운동을 “자본가 계급의 노동자 계급에 대한 압제와 약탈을 자각하는 운동”으로서 정의함과 동시에 노동문제의 진의는 “인류 전체가 정복적 생활의 오류를 자각하고 인류가 상애(相愛)의 열정으로써 현재의 불합리한 경제적 사회조직을 개조”함에 있다고 보았다. 又影生, “근대 노동문제의 眞義” 『개벽』 1, 1920, pp. 70-71.).

16) 니콜라이 레닌, “노동의 창조,” 『개벽』, 1923, pp. 37-38. 이 글에서 레닌은 “자본주의가 부여하는 경제 자유의 기만을 끊고, 임금 노동의 습관을 버리며 진정한 노동의 자유와 새 사회를 건설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는 업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게 仁義를 구하였다. 豺狼에게 仁義를 구하려는 우리도 우리러니와, 豺狼으로서 仁義를 베푼다는 그놈들의 假面이야말로 壯觀이다.¹⁷⁾

김기전은 약소민족이 자본제국들에게 취할 바는 피를 받치거나 철퇴를 내리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그동안 우리가 승냥이에게 인의(仁義)를 구한 것도 가관이었지만, 또한 인의를 베푼다는 저들의 가면이야말로 장관이었다고 힐난하였다.¹⁸⁾ 그리고 저들 승냥이의 세력에 대항할 인간의 세력은 “세계 사회주의적 운동”에 있다고 보았다. 즉 대항세력은 “각국 각 민족 간의 무산대중의 양심을 통해서 발발하는 사회주의적 운동”이라 보았고, 조선도 “만국의 무산자여 단결하라”¹⁹⁾는 그 운동의 국제적 결연(結聯)에 함께 연대할 것을 제기했다. 김기전은 특히 1925년을 서구 “個人主義의 문명으로부터 일약 사회주의의 文明에 들어서려는 일대 전환기”²⁰⁾로 보면서 ① 약소민족의 국권운동과 ② 노농러시아의 아시아화 ③ 영미불을 위시한 자본주의 열강의 결합을 세계적 동향으로 특징지었다.²¹⁾ 그리고 자본제국주의 국가의 포학에 대한 약소민족의 울분이 중국을 필두로 폭발되기 시작한 한 해로 묘사하면서 무산자 민중 모두가 곧 약소민족으로서 민중들이 서로 손을 잡을 것이라 하였다.

오늘날의 약소민족이라 하는 말은 결국 정치상으로 주권을 잃고 경제상으로 착취를 당하는 민중을 지칭함인바 비록 여하히 본국의 국기(國旗)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지로 그 나라의 정권에 간여하지 못하고 생활의 보장을 얻지 못하는 민중 - 달리 말하면 무산계급에 속

17) 小春 抄(김기전), “世界社會主義運動의 史的 記述,” 『개벽』 46, 1924, pp. 51-52.

18) 김기전은 이통곡의 서신을 소개하면서도 중국에서 조선 동포들이 3.1절 기념식장을 英佛米의 국기로써 꾸민 것에 개삼 비판을 가했다. 군국주의, 침략주의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약소민족인 조선 사람이, ‘그 벗어나려는 운동을 기념’하는 3.1절 축하식에서 군국주의의 표본인 영불미(英佛米)의 국기를 예찬하느냐는 것이었다.

19) 김기전, “世界社會主義運動의 史的 記述,” p. 53. 김기전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가 아닌 “만국의 무산자여 단결하라!”고 하였다.

20) 起田, “朝鮮의 一年-世界의 一年.” 『개벽』 64, 1925, p. 2.

21) 起田, 위의 글, pp. 2-3.

한 그 사람은 다-같은 약소민족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실제에 있어서 이 민족들은 서로 손잡을 것이다.²²⁾

천도교는 당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무산자 약소민족의 대립구도라는 인식 하에 반자본주의의 세력 연대를 통한 민족해방, 계급해방, 여성해방, 소년해방, 인간해방으로 나가자는 민중운동을 지향했다.

Ⅲ. 천두슈(陳獨秀)의 신문화운동과 조선 천도교

천도교 신문화운동은 자본제국주의의 패권 경쟁 하에 들어 있는 세계정세 속에서 조선식민지라는 현실을 파악하고 동아시아적 지평으로 사유를 넓혀간 운동이었다. 여기에는 중국, 러시아, 일본의 상황이 정세판단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중국의 변화가 주목되었다. 이동곡은 북경에 주재하면서 국내 개벽사의 특파원 역할을 맡았다. 중국에서 일어난 신해혁명, 5.4운동, 북경대 중심의 신문화운동, 그리고 국민혁명에서 사회주의 혁명에 이르는 과정을 조선 식민지 해방과 관련시켜 그 의미를 해부해 나갔다. 그는 중국의 상황을 식민지 조선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해부하고자 했고, 중국의 문제를 세계적 문제로 인식했으며, 중국과 조선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에 조선은 중국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다.²³⁾ 이동곡은 분명 중국의 사례를 보면서 전 세계 피압박 민족의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과 무산계급의 부흥, 민중의 단결을 지향해나갔다고 볼 수 있다.

이동곡이 중국 신문화운동으로부터 간파한 것은 조선도 사상계의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상문화적 각성이 없거늘 정치적 변혁을 달성할 주체형성이나 환경조성도 불가능했다. 그는 신문화란 신

22) 起田, 위의 글. p. 2.

23) 北旅東谷, “朝鮮對中國之今後關係觀.” 『개벽』 28, 1922, p. 46. 일찍이 천두슈는 신문화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유교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천도교의 경우도 조선이 유교를 자국의 문화로 삼아 온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조선적 사유인 동학에 뿌리박을 것을 주장했다.

사상의 반영이라 하였고, 신사상은 사상의 창조이며 우리의 신생은 사상의 혁명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사상혁명의 선구자인 천두슈를 주목했다.²⁴⁾ 천두슈가 신문화운동의 선봉으로 『신청년』 잡지를 간행한 것과 차이위 안페이(蔡元培)가 북경대를 중심으로 전국 신사상계의 인물들을 결집시켜 신정신으로 신교육을 실시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중국의 사회운동은 이러한 신문화운동의 민중적 개조로부터 신기원이 그어진 것임을 그는 강조했다.²⁵⁾

천두슈가 말하는 신문화운동은 인류의 해방을 낳는 근본적 토대를 의미했다. 즉 그가 지향한 신문화운동은 창조의 정신, 집단활동, 다른 영역으로의 파급효과를 목적인 것이었다. 그는 창조를 진화로 보았고, 집단의 결합과 조직활동에서 공공심의 발휘를 중시했으며, 다양한 영역으로 파급되는 사회개조를 목적했다. 예를 들어 신문화운동이 군사적인 면으로 파급되면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이고, 산업에 미치게 되면 노동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깨닫게 되며, 자본가들에게 미치면 노동자를 기계나 소, 말, 노예가 아닌 사람으로 대우하도록 할 것이었다. 또한 신문화운동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면 새로운 정치사상을 창조해내고 현실 정치의 억압과 구속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었다. 천두슈는 현재 각 군벌들이 저마다 군사를 보유하고서 마치 개들이 뼈다귀를 다투는 것처럼 정권탈취만을 다투는, 그들의 쟁탈전이 ‘개의 운동’이라면 신문화운동은 ‘사람의 운동’이라 하였다.²⁶⁾

이동곡은 이러한 중국의 신문화 운동과 사회운동을 보면서 조선의 신문화도 곧 신사상의 운동으로 의미지었다. 이는 우리 것에 대한 성찰, 현대 사상 및 문화에 대한 계통적 논의, 사회해석이 가해진 사상운동이었다. 그는 당시 사회운동의 세태를 “신문이나 잡지하면 순연히 일본의 출판물의 假冒에 불과하고

24) 이동곡, “사상의 혁명.” 『개벽』 52, 1924, p. 10.

25) 北旅東谷, “현중국의 구사상, 구문예의 개력으로부터 신동양문화의 수립에.” 『개벽』 30, 1922, pp. 26-27.

26) “신문화운동이란 무엇인가?(新文化運動是什麼?).” 『신청년』 7-5, 1920; 천두슈 지음, 심혜영 옮김, 『천두슈 사상선집』, 부산: 산지니, 2017, pp. 204-207.

소위 사회의 일을 한다는 무슨 회, 무슨 당 하는 것은 사회의 분열과 증오를 일으키는 소굴”²⁷⁾이라 비판하면서 주체적이고 자각적인 신사상을 강조했다. 신사상의 반영과 개조가 없고, 아무 주체성이나 창조성도 없으며 오직 기계적 모방을 일삼고 독선에 빠져 분열과 증오를 일으키는 분파주의를 그는 경계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민족의 신생운동으로서 신문화운동이란 곧 사회개조운동의 개시로서 사상혁명으로부터 비롯해 단결과 협동의 보조로 나아가고, 신생운동의 제일선에서 선구적 별동대를 만들어 계급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었다.²⁸⁾

이동곡이 주시했던 천두슈의 국민혁명론도 “피압박민족의 자위책으로 부득불 일어나 국제제국주의의 침략에 저항함으로써 중국이 완전하게 진정된 독립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²⁹⁾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리고 국민혁명의 노선을 “국민군 조직 → 국민혁명으로 국내외의 모든 억압 체제 → 민주적·전국적 통일정부 수립 → 국가사회주의 채택과 실업 발전”³⁰⁾으로 구상한 것이었다. 즉 천두슈가 말한 국민혁명의 목적은 대외적으로 민족의 정치경제적 독립을 요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인민의 정치적 자유를 요구함이였다.³¹⁾ 이 혁명은 전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필요한 것으로서 어떤 한 계급에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혁명을 실현할 동력은 각 계급 혁명분자들의 연합된 힘에 있다고 그는 보았다. 이는 민족혁명과 계급혁명, 즉 국민혁명과 공산혁명은 상호 결합되어야 한다는 전략적 인식을 지닌 것이었다.

또한 천두슈는 무산계급만이 가장 비타협적인 혁명계급이며 국제 자본제국주의의 천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 세계 각국의 국민당도 모두 이러한 수요에 부응해서 만들어지고 세력을 확장하고 성공을 거두었으며, 중국 역시 그

27) 이동곡, “사상의 혁명.” 『개벽』 52, 1924, pp. 9-10.

28) 이동곡, 위의 글, p.6.

29) “연성자치와 중국의 정치적 상황(聯省自治與中國政象).” 『向導』 주보 제1기, 1922; 천두슈 지음, 심혜영 옮김, 『천두슈 사상선집』, p. 285.

30) 이동곡, “중국의 정치적 현세와 사회적 현세.” 『개벽』 31, 1923, pp. 47-48; “조국론(造國論).” 『향도』 주보 제2기, 1922; 천두슈 지음, 심혜영 옮김, 『천두슈 사상선집』, p. 290.

31) “국민당과 공산주의자(國民黨與共產主義者).” 『중국국민당강연집』, 1927 10월판 수록(1924); 천두슈 지음, 심혜영 옮김, 『천두슈 사상선집』, p. 312.

러할 것이라 전망했던 것이다.³²⁾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피압박 노동계급혁명과 피압박 약소민족은 서로 연합하여 혁명을 진행해야만 비로소 세계의 억압자들을 전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³³⁾

천두슈는 러시아 혁명도 계급운동이자 민족운동으로 규정했다. 노농 러시아 혁명은 ①도시 노동자가 자산계급을 타도하고 자유를 얻어낸 것 ②시골 농민이 지주계급을 타도하고 자유를 얻어낸 것 ③러시아 국경 안의 약소민족이 러시아 황제와 자산계급 통치를 타도하고 자유를 얻어낸 것 ④전 러시아 인민이 서구 제국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어낸 것이라 규정했다. ①②는 계급운동이고 ③④는 민족운동이다. “이 두 가지 혁명운동은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어떤 장애도 없었음”³⁴⁾을 강조하면서, 이는 “노농해방운동의 측면에서 보다 민족해방의 측면에서 더 성공적인 운동이었음을 충분히 입증해준다.”³⁵⁾고 말했다.

무릇 10월 혁명 이후 수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러시아 국경내의 약소민족 문제는 비로소 온전히 해결되었고, 더 나아가 소비에트 러시아는 근동, 원동의 약소민족과 피압박 국가들(중국, 터키, 페르시아, 이집트, 아프칸 같은 나라들)을 원조해서 전 세계의 피압박자들이 공동으로 압박자인 국제 제국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거대한 본부를 건립했다. ... 이치대로라면 현재 전 세계 피압박계급과 피압박민족, 피압박국가들은 모두 연합해서, 이 세계혁명의 거대한 본부의 지원 하에 공동으로 국제 제국주의 타도에 나서야만 비로소 모두 출로를 얻게 될 것이다. 중국의 민족해방운동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며 이 세계혁명의 대조류를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³⁶⁾

32) 천두슈는 공산주의자들이 국민당에 가입하고 국민당 또한 그들의 가입을 허락함은 국민당이 국민혁명의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혁명 세력은 나뉘어서는 안 되며 국민혁명은 마땅히 각 계급이 협력해야만 힘을 표하는 것이라 하였다. 특히 식민지의 국민혁명에 공감을 표하는 세력은 오직 진정으로 공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세력이어야 하는데, 이는 공산세력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다.

33) 천두슈 지음, 심혜영 옮김, 『천두슈 사상선집』, pp. 312-313.

34) “시월혁명과 중국민족해방운동.” 『향도』 주보135기, 1925; 천두슈 지음, 심혜영 옮김, 『천두슈 사상선집』, p. 336.

35) 천두슈 지음, 심혜영 옮김, 위의 글, p.337.

36) 천두슈 지음, 심혜영 옮김, 위의 글, pp. 337-338.

천두슈는 국외에서 반제국주의 운동을 가장 치열하게 전개하는 건 바로 소비에트 러시아이며 중국에서 반제국주의 운동을 가장 치열하게 전개하는 건 바로 공산당이라 하였다.³⁷⁾ 그리고 “혁명운동이 전진 발전하도록 하려면 오직 중산 선생이 남긴 혁명의 철칙인 무력과 민중의 결합을 준수하는 길밖에 없다”³⁸⁾고 하였다. 그는 전 세계 피압박계급과 피압박민족, 피압박국가가 모두 연합해서, 이 세계혁명의 거대한 본부의 지원 하에 공동으로 세계제국주의 타도에 나서자 했다. 이러한 천두슈의 운동노선은 조선의 천도교 신문화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러시아, 중국, 조선의 사회주의 혁명운동은 상호 연동되어 나아갔다.

IV. 천도교의 신문화운동과 계급의식

1. 해방으로서 신문화운동

3.1운동 이후 천도교는 사회주의를 수용하여 이를 조선해방을 위한 전략으로 삼았다. 먼저 김기전은 인류역사상의 2대 해방선언을 소개하면서 이를 조선의 신문화운동과 연계시키고자 했다. 마르크스가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 한 것에서 “인류의 역사는 해방의 역사”³⁹⁾라 하였고, 18세기의 프랑스 혁명과 20세기의 러시아 혁명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러나 프랑스 인권선언은 “남자의 권리선언이었지 「女權의 선언」이 포함된 것은 아니었고, 귀족과 사제(승려)에 대한 유산자(주로 상공업자)의 권리선언이었지 무산자의 권리는 배제된 것”이었음을 피력했다. 이는 “돈 없는 사람의 혁명이 아니라 돈 가진 사람의 혁명이었던 까닭”⁴⁰⁾에 “정치적 기본권의 선언”이지 “경제적

37) 천두슈 지음, 심혜영 옮김, 위의 글, p. 341.

38) “혁명과 민중.” 『향도』 주보186기, 1927; 천두슈 지음, 심혜영 옮김, 『천두슈 사상선집』, p. 354.

39) 妙香山人 考, “第一의 解放과 第二의 解放, 人類歷史上의 二大解放宣言.” 『개벽』 32, 1923, p. 25.

40) 妙香山人 考, 위의 글, pp. 26-27.

기본권의 선언”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불란서 혁명의 인권선언은 인류 평등의 원리를 聲明하였다. 그러나 그 평등은 다못 법률상의 평등에 지내지 못하였다. 실생활 상의 평등을 期한 것이 아니었다. 엇더케 말하면 도로혀 실생활상의 불평등을 확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웨 그러나 하면 인권선언은 천부의 인권으로 자유안전압제에 대한 반항의 外에 소유권을 들고(제2조) 그 것으로 「신성불가침의 권리(제17조)」라 하였다. 그런데 실생활에 잇서 인류를 불평등하게 하는 것은 빈부의 懸隔이며 재산사유의 제도이다. 그때의 「인권선언」은 만인의 법률상 평등을 認하는 동시에 각 개인의 소유권제도를 신성화케 하였다. 이 소유권의 신성화로 緣하여 실생활상 불평등한 사실도 또한 신성화하고 마렸다.⁴¹⁾

프랑스 혁명의 인권 선언은 결국 사유재산의 제도를 소유권으로서 신성화함으로써 실생활 상 불평등을 낳았고, 그 불평등을 정당화시킨 것으로 이해되었다. 만인평등의 정치적 권리는 경제적 권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상 허명(虛名)에 지나지 못한다. 민중들은 과거 100여 년 간 제2의 해방운동, 즉 “제2의 인권선언을 위하여 실 줄 모르는 운동을 계속”해 왔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사회주의적 운동”⁴²⁾이며 러시아 혁명은 바로 민중의 경제적 기본권을 선언한 것이라 그는 말하였다. 민중의 경제적 기본권은 부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시민의 평등에 있다.

1918년 7월 10일 세계가 아즉은 歐州大戰의 암흑에 잇을 때에 제2의 해방선언이 발표되었다. 그것은 즉 「露西亞社會主義 勞農共和國의 헌법」이니 그의 제1장은 분명히 「勞働者 被掠奪者의 권리선언」이라는 이름을 가지엿었다. 이 제2의 解放宣言(달리 말하면 인권선언)에 잇서 가장 주의할 것은 그것이 정치적 기본권의 선언임과 가티 일층 중요한 요소로 「경제적 기본권」의 선언을 함유하였다는 점이다. 勞農共和國은

41) 妙香山人 考, 위의 글, p. 28.

42) 妙香山人 考, 위의 글, p. 30.

경제 생활에 잇서는 「부의 생산 及 분배에 대한 露西亞 전시민의 평등」을 실현하러 함이 그 근본 목적이였다.⁴³⁾

또한 김기전은 메이데이(5월 1일) 노동자 시위운동의 날과 그 유래⁴⁴⁾를 소개하면서 세계 무산계급운동의 확대를 예견했다. 그런데 조선의 경우는 메이데이에 아무 소리가 없고 일부 단체에서 이날을 기해 시위운동을 행하리라는 말은 있으나 하등의 구체적 논의가 없는 현실상황을 말하였다.

메이데이의 노동자 승리 이후 1889년에 창립된 파리 제2회 국제사회당은 1890년부터 만국 노동자의 국제적 단결을 도모하고 이 날을 전 세계의 자본가 계급에 반항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날을 세계적 대시위 운동의 날로 정하였다. ... 이후 메이데이는 해방운동에 汲汲하는 만국 무산자의 기세를 왕성케 하는 기회로 해마다 성대하게 세계 도처에서 기념되었다. ... 대전이 끝나자 러시아에는 노농공화국이 건설되고 독일 및 오스트리아 공국의 帝位도 공석이 됨에 혁명의 형세가 전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무산계급의 운동은 다시금 부활하여 「메이데이」의 노동기념제도 역시 부활되었던 것이다. 이 메이데이의 노동기념은 1919年 5月 1日부터 일본의 무산계급 간에도 행하여 작년 제3회 「메이데이」에는 동경에서 참가자 5천, 大阪에서 1만5천, 기타 神戸 福岡 等 都市에서 많은 참가자가 있어서 기세를 날렸다.⁴⁵⁾

그러면서 그는 시위운동이 있든 없든 5월 1일이 전 세계의 무산대중을 통해서 얼마나 의의 있게 기념되는 날인가를 생각하자 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처지를 다시 생각하여 “우리가 취할 바 유일한 사업이 무엇이며 그 사업을 실현할 유일의 방책은 무엇이 되겠는가.”⁴⁶⁾를 생각하여 단행하자 하였다. 그리하

43) 妙香山人 考, 위의 글, p. 30.

44) 메이데이는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미국의 노동운동에서 유래된다. 1886년 5월 1일을 기하여 미국 전토의 노동자들이 일제히 고용주들에게 8시간제를 요구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하기로 결의했다. 결국 노동단체들이 일치단결하여 노동자들이 승리를 거두었다.

45) “五月 一日은 엇더한 날인가(節候로 본 五月 一日).” 『개벽』 35, 1923.

46) 위의 글. 메이데이 날 오후 3시 소년운동협회에서는 소년문제에 관한 약 20만매의 선전지를 배포하고, 밤 7시부터는 소년문제에 관한 연설회와 연예회를 열었다.

여 그는 메이데이를 어린이날로 정하여 신문화운동을 도모해 나갔다. 이는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민중운동의 주체로서 소년들을 길러내자는 의도였다. 천도교가 처음에 메이데이를 어린이날로 정했던 것은 민중운동의 시작을 소년해방운동에서부터 펼쳐가겠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었다. 정치해방, 계급해방도 어린이를 먼저 해방함에서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다.

우리는 지금 민족으로 정치적 해방을 부르짖고 인간적으로 계급적 해방을 부르짖는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되 우리가 먼저 우리의 발 밧해 있는 낡은 어린이를 해방치 아니하면 기타의 모든 해방운동을 사실로써 철저히 못하리라 한다. ... 해방의 도는 그 끝에 어린이를 해방함에서 지어지리라고 한다.⁴⁷⁾

2. ‘조선적 계급의식’에 기초한 민중운동의 신문화운동

1920년 이돈화는 신문화건설의 도안⁴⁸⁾을 작성하고, 서구근대철학을 소개하여⁴⁹⁾ 전 계층의 의식각성에 초점을 둔과 동시에 노농운동과 계급의식에 입각한 민중운동으로서의 신문화운동을 지향했다. 이는 중국의 신문화운동이 사회주의 민중운동으로 진행되었던 것과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돈화는 계급의식이란 “모든 계급의 대립으로부터 일어나는 사람의 감정”⁵⁰⁾을 의미한다. 즉 계급의식은 단순히 피지배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이룸이 아니라 계급의 고정불변함을 의식하여 그 억압을 스스로 해방시키고자하는 의식이다. 또한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영원히 자기의 행복도 꺾힐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의식이다. 예를 들어 노예가 자신이 노예계급이라는 것을 단지 아는 것

47) 기전, “개벽운동과 합치되는 조선의 소년운동.” 『개벽』 35, 1923, p. 26.

48) 이돈화는 신문화운동의 초보단계로 「조선신문화 건설에 대한 도안」(1920)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기사회생의 유일한 방법은 맹렬히 깨닫고 분연히 일어나 하나하나 실지 건설에 착수하는 길뿐”이라 말했다. 이돈화, “朝鮮新文化 建設에 對한 圖案.” 『개벽』 4, 1920, p.10.

49) 정혜정, “이돈화의 인내천주의와 서구근대철학의 수용.” 『동학학보』 19, 2010 참조.

50) 이돈화, “갑오동학과 계급의식.” 『개벽』 68, 1926, p. 44.

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노예로 사는 계급의 고정불변한 폐해를 알고 그 계급제도를 스스로 개조하려는 적극적 의식이 계급의식이다. 이돈화는 이러한 계급의식을 주입한 본가(本家)가 갑오동학혁명이라 하였다. 당시 “무지한 탐관오리들이 동학당을 압박하여 생명 재산을 여지없이 탈취한 반동세력으로 말미암아 갑오동학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이돈화가 주장하는 동학의 계급의식이란 처음부터 혁명적 수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천의 신앙으로 들어가 “인류는 절대평등”이라는 인생관을 세워 부지불식간 평등자유 사상으로서 형성되는 계급의식이다. 이 계급의식은 반동세력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반동세력이 소멸되면 계급의식도 소멸된다. 이돈화는 갑오동학혁명의 의의를 ①정치혁명 ②계급투쟁 ③이상향 건설 세 가지로 제시하면서, 조선에 이러한 민중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도 “동학교화의 계급의식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고, “수운심법(水雲心法)의 강력한 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였다.⁵¹⁾ 이는 가히 조선적 계급의식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돈화는 현재 세계대세라 할 ‘노농운동(勞農運動)’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의 특수 처지를 생각해야 함을 주장했다.⁵²⁾ 모든 운동은 각 민족과 나라의 처지를 따라 수단과 방법이 취해져야 한다. 조선의 사정을 명백히 밝히고, 공정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일에 모순이 생기고 행동에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당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조선의 노농운동에서는 농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노동자는 소수에 불과한 특수한 현상을 지적했다. 조선의 경우는 공업이 왕성한 국가처럼 노동자가 선봉이 되거나 운동세력의 본위가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농민은 보수성과 순박성, 혹은 낙후성을 띠어 노동자만큼 개조의 활기가 떨어진다.⁵³⁾ 따라서 이돈화는 조선해방의 운동주체는 무산청년동맹이 선봉이 되어

51) 이돈화, 위의 글, p. 45.

52) 이돈화, “朝鮮勞農運動과 團結方法, 階級的 意識-精神的 願力-組織의 完全-農民과의 握手.” 『개벽』 46, 1924, p. 93.

53) 김기전 역시 농민들의 의식 수준을 인식하여 조선노농운동의 현주소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농민들의 계급의식이 시대에 뒤쳐짐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 김해 농민을 들었다. 김해의 약 1만 명의 농민들은 김해

농민과 함께 상호 협조해 나가야 함을 주장했다. 조선청년총동맹⁵⁴⁾이 바로 선봉이 되어 그 목표를 이루고, 이로써 노농운동의 중심정신을 삼아 단결해나갈 것을 촉구한 것이다.⁵⁵⁾

이돈화가 계급의식과 노농운동의 주체로서 청년총동맹을 제시했던 것은 맑스주의의 ‘운동주체로서 노동자의 계급의식’과는 판이한 개념이었다. 당시 90% 이상이 농민이고 노동자가 희박하며 생산력이 발달하지 못한 조선의 상황과 처지에 입각해서 동학적 입장을 가미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돈화도 계급의식에 기초한 단결은 농민보다 공업노동자라야 쉽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농업노동자도 계급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직업상 노동자처럼 한 장소에 큰 집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결함이 있고, 또한 ‘전사고풍(田舍古風)하에 길러진 天質’이 있는 까닭에 공업노동자처럼 계급의식이 민활하게 발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돈화도 인식했다. 그러나 조선의 처지에 입각할 때 조선노농운동의 주체는 먼저 무산청년동맹인 조선청년총동맹이어야 했다.

조선은 이상의 말과 같이 농민의 세계인 까닭에 노농단결이라 하면 부득이 무산청년의 계급의식적 단결을 얻지 않아서는 안 될 일이다. 이 점에서 조선청년총동맹은 더욱이 계급의식 위의 단결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⁵⁶⁾

청년회가 형평사 운동에 찬의(贊意)를 표했다는 이유로 청년회와 교육회의 건물을 파손하고, 최동명(崔東明)씨 등의 가옥을 훼파(毀破)했다. 그러나 일제 경찰은 농민의 폭행을 방관·묵인할 뿐이고, 농민들의 형세는 한층 맹렬해졌다. 당시 농민들은 백정계급과는 도저히 동격으로 살 수 없다 하여 종래의 반상(班常), 귀천(貴賤)의 관념을 고수했다. 김기전은 농민들이 ‘농민(無產者)된 자기네의 見地’에서 새 사회 건설을 계획한다면, 현재의 권력계급이 아니라 천민계급에 속한 그들과 손을 잡아야 할 것인데, 농민들이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라 했다. 또한 폭행을 당한 김해청년회는 사회주의자의 집단이고, 노동자와 농민의 벗임에도 공격을 당한 것은 청년회의 표방이 과연 얼마나 민중에게 철저히하였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 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민중에게 돌아가고, 工場으로 가고, 농촌으로 가자”하였다. 한편 그는 소년운동도 언급하면서 대전 지역의 장유제휴(長幼提携)를 특히 주목했다. 장유제휴는 장유유서에 대한 반항이다. 小春(김기전), “사상과 경향.” 『개벽』 39, 1923, p. 128.

54) 조선청년총동맹은 1924년 서울에서 조직된 사회주의 청년운동단체이다. 1920년 12월 조선청년연합회가 결성되었는데, 1922년 1월 김윤식 사회장 건으로 김사국, 김한 등 서울청년회가 분리되어 나옴에 따라 1924년 2월 11일 다시 통합하여 조선청년총동맹을 창립시킨 것이다.

55) 이돈화, “朝鮮勞農運動과 團結方法, 階級的 意識-精神的 願力-組織의 完全-農民과의 握手.” 『개벽』 46, 1924, p. 94.

또한 이돈화가 말하는 무산자 단결의 중심은 사상적 단결이었다. 사상적 단결은 정치적·사회적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순수한 이상적·자력적 동기가 그 단결의 중추력이 된다고 보았다. 즉 그는 조선청년총동맹이 ‘권력이나 명리(名利)를 추구하는 단결이 아니라 사회개조를 목표로 하는 사상적 단결’이라는 점을 환기시켰고, 사상적 단결에는 적어도 “사람성 본능의 충동으로 인한 일대(一大) 중심세력이 그 중추가 되어야”⁵⁷⁾함을 분명히 했다. 여기서 사람성 본능과 사람성 충동은 인내천의 본성과 창조성을 뜻한다. 요컨대 이돈화는 조선청년총동맹을 조선 유일의 사상적 단결체로 규정하면서 그 단결의 중심을 ‘노동운동의 사람성 창조’에 뿌리박아야 할 것을 말했다. 이는 ‘사람성 본능의 창조적 충동’을 중추로 놓아 계급의식의 단결을 세우고자 함이다.

조선청년총동맹은 권력적 단결이 안이오 또는 영리적 단결도 안이다. 그는 순수히 사상적 단결이다. 사상적 단결 중에도 권력적 단결과 조화할만한 성질을 가진 단결이 안이오 寧히 그와 대항하여 승부를 決코저 하는 단체이다. 그럼으로 거기에는 체면이 없고 모방이 없다. 적어도 본능적이며 충동적 원기에서 나온 단결이 안이어서는 안 될 일이다.⁵⁸⁾

조선청년총동맹은 권력단체와 대항하여 승부를 가르는 단체이고, 자본제국주의를 겨냥하는 정치적 민중문화운동단체로 규정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① 계급의식의 단결, ②원력(願力)의 단결, ③조직의 원리를 부여했다. 여기서 계급의식의 단결이란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고정 불변하는 계급의 폐해를 의식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고치고 바꾸겠다는 계급의식의 단결을 말하고 동시에 사람성 창조에 뿌리박은 보편의식의 단결을 말한다.⁵⁹⁾ 그리고 이를 원력으로 삼아 조직을 결합·확산시켜나가는 신념적 단결이 원력의 단결이다. 그는 이러

56) 이돈화, 위의 글, p. 97.

57) 이돈화, 위의 글, p. 96.

58) 이돈화, 위의 글, p. 96.

59) 이돈화, 위의 글, pp. 96-97.

한 단결이야말로 무서운 단결이라 했고, 조선청년총동맹이라 하면 적어도 이러한 계급의식을 기초로 해서 조직된 단체여야 함을 주장했다.

이돈화가 조선청년총동맹을 노농운동의 주체로 놓은 것은 노동자가 소수이고 생산력이 발달하지 못한 조선의 현실을 감안한 것이었다.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동일선상으로 놓아 단결과 일치를 구상했던 계급운동이었다. 흔히 천도교 신문화운동을 민족개량주의로 분류하지만 천도교 신문화운동⁶⁰⁾은 조선청년총동맹을 선봉으로 하는 조선노농운동과 분리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실제 천도교는 청년총동맹에 가입하여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해방운동을 펼쳐나갔다.⁶¹⁾

V. ‘문화주의정치’와 인간해방

이돈화는 신문화운동에서 민중문화의 정치를 지향했다. 정치란 “한 나라, 한 민족 전체의 살림살이의 방침과 처치”를 일컫는 것인데, “그 인민의 전체생활을 보다 향상케 할 방침이 있고 또한 그 방침을 잘 처리하는 식견과 수단”⁶²⁾을 정치라 개념 지었다. 민중정치라는 것은 “정치의 의사가 오로지 한 개인 혹은 일부 계급에 있지 아니하고 인민 전체의 총 여론에 의해 방침을 세우고 처치의 태도를 정하는 것”⁶³⁾이다. 이돈화가 민중정치를 합리적이고 진보적으로 이해했던 것은 나라가 한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요 전 국민, 전 민족이 공유하는 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 국민이 공동의 책임과 의무를 가

60) 천도교 신문화운동은 ‘민중의 각성운동-신사상운동-계급해방의 개조운동’을 목적으로 어린이, 학생, 청년, 여성, 노동자, 농민, 상인의 7개 부문에서 펼쳐나갔던 사회운동이었다. 이는 일정부분 러시아의 브나로드 운동, 중국의 신문화운동과도 맥락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61) 일제하 대부분의 독립운동은 사회주의 운동과 민족운동이 결합된 것이었다. 양자를 분리시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천도교 박호진의 사례도 이를 증명해주고 있는데, 박호진은 천도교 민족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였다. 사회주의 단체와 연합하여 민족 대단결의 연합전선을 펼치고자 했고, ML 당 재건을 도모하다가 검거되었으며 노농운동을 통해 민족계급-여성해방운동을 구체화하였다.

62) 滄海居士(이돈화), “朝鮮人과 政治의 生活, -民衆政治의 今日-總督政治 10년 후-, -朝鮮人의 政治生活 修養의 必要.” 『개벽』 29, 1922, p. 4.

63) 이돈화, 위의 글, p. 5.

지고 이해득실을 전 국민의 의사타산에 의거하는 것은 사실상 ‘천연공리(天然公理)’가 되는 것이다.⁶⁴⁾

이돈화가 지향한 신문화 건설은 이러한 민중정치의 지향을 내포한 것이었고, 민중정치는 전체 인민의 의사에 의한 ‘문화주의정치’를 뜻했다. 입헌자본제국의 군국주의 정치가 ‘국민개병(國民皆兵)’에 방침을 두고 침략의 도구로 삼았다면, 반대로 이돈화는 민중정치와 연결된 문화정치운동을 지향했다. “오늘의 문화주의정치는 ‘국민개정(國民皆政)’의 이상을 가지는 것”으로서 “국민 전체가 다 같이 정치객이라 하는 주의 하에서 모든 신문화를 건설하게 되는 것”⁶⁵⁾이다. 특히 “금일 세계를 통하여 노동당의 세력이 발흥하여진 것은 실로 민중정치의 철저한 실현”⁶⁶⁾이라 하였다. 과거 입헌정치는 민중과 민중을 구별하고 특정한 일부 민중에게만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민중 대부분은 그대로 국가에 대해 객원(客員)이 되었다. 그러나 “세계의 금일은 실로 민중정치의 철저적 현실이 날로 나타나지는 현상”이라 하였다.⁶⁷⁾

현대의 정치적 의미는 민중생활 그것과 밀접 불가리(不可離)의 관계를 가진 그 점을 말하는 것인즉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풍부케 하며 향상케하며 조장케 하려면 일반 민중이 한가지로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그를 토의하며 그를 비판하여야할 것이오 進(進)해야 전 민족의 자기네의 살림살이를 자기네 손으로 處(處)辦할 역량과 이상을 포부하여야할 것이다.⁶⁸⁾

또한 이돈화가 문화주의정치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은 정신문제였다. 그는 청년 맑스주의자들의 유물사관에 대해 만사를 유물적·기계적으로 판단하여 정신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물관의 배후에

64) 이돈화, 위의 글, p. 5.

65) 이돈화, 위의 글, p. 5.

66) 이돈화, 위의 글, p. 6.

67) 이돈화, 위의 글, p. 6.

68) 이돈화, 위의 글, p. 8.

정신적 원력이 복재(伏在) 함을 강조하였다.

근대 맑스주의를 신봉하는 인사(人士) 간에는 대개 만사를 유물적 기계적으로 판단코저 하여 정신문제를 度外에 付케 하는 感이 업지 안 이하다. 그래서 그들도 動輒○○○○의 도래를 필연적 운명관에 부쳐버 리고 마는 것이다. 맑스의 이른바 ○○○○이 만일 그들의 해석함과 가 티 물질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필연적 결과에서 生하는 것이라 하면 현 재 세계 각 민족의 절규하는 모든 행위는 淸컨대 太半은 無用의 事가 되고 말뿐이겠다. 맑스의 유물관이 해석하는 人에 대하여 兩兩의 差違 가 있는 것은 말할 배가 업거니와 다만 우리들의 절실히 늦기는 바는 경제적 유물관의 이면(裡面)에는 적어도 정신문제가 포함치 아니하여 서는 아니된다 단언할 수 있다. 유물관의 배후에 정신적 원력이 복재한 점에서 처음으로 만사는 필연적 운명에 뿐 막기게 되지 안이하고 인간 의 意匠 인간의 의식적 활동이라 하는 위대한 勢力下에 新世界의 건 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조선의 현상도 더욱이 정신적 원 력을 除却한 단결로는 도저히 長就의 望을 부칠 수 업는 것이니 이 점 이 적은 듯하나 대단히 크게 생각할 문제일 것이다.⁶⁹⁾

역사발전은 생산력 발전에 따른 필연적 법칙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의 의식적 활동의 정신적 원력 밑에서 새로운 세계건설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이다. 정신적 원력을 배제한 단결은 새로운 세계를 희망할 수 없고, 물질과 정 신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분리될 수 없다. 의식은 “생활력의 意적 활동”이다.⁷⁰⁾ 생활양식과 생활의식은 두 개의 차바퀴와 같아 생활양식이 변하면 생활의식이 개조되고, 생활의식이 개조되면 생활양식도 변하는 것이다.

봉건시대의 생활양식은 봉건적 의식으로 표현되고, 자본시대의 생활 양식은 자본의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럼으로 생활양식과 생활의식은 車 의 雨輪과 가티 항상 붓히 댕기는 물건입니다. 생활양식이 변함에 따

69) 이돈화, 위의 글, p. 98.

70) 이돈화, “사람성과 意識態의 關係, 「機械意識」 「階級意識」 「超越意識」.” 『개벽』 59, 1925, p. 5.

라 생활의식이 개조되고 又 생활의식이 개조됨에 따라 생활양식이 변하여집니다. 두 편에 어느 것이든지 변함에 따라 다른 한 편은 스스로 변하여지지 안치 못합니다. 이로써 보면 사회개조의 쫓는 어느 편에든지 힘있게 부드쳐 힘있게 개조를 힘쓰에 있습니다.⁷¹⁾

이돈화가 말하는 생활양식과 생활의식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생산양식과 계급의식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보인다. 생활양식이 개혁됨에 따라 생활의식이 개조되고 생활의식이 개조됨에 따라 생활양식이 변하는 것인데, 그는 생활의식을 기계의식⁷²⁾, 계급의식, 초월의식으로 나누었다. 계급의식은 기계의식의 노예성을 각파(覺破)하는 순간, 해방을 위해 모든 인습에 대하여 일어나는 의식이다.⁷³⁾ 계급의식은 상대적 의식인 점에서 외래적 의식이라 할 수 있다. 계급이 있으면 계급의식이 성립되는 것이고 계급이 소멸되면 계급의식도 소멸하는 것과 같다. 계급은 주체가 되고 계급의식은 그림자이다. 또한 계급의식은 순수한 인간 자유의지의 창조라기보다는 사회상태를 반영하는 투영적(投影的) 의식이다. “계급의식은 기계의식을 타파하게 하고 인간 노예화를 방지하는 점에서 확실히 진보된 의식”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개조와 진화를 촉진시키는 힘 있고, 탄력(彈力)적인 의식이다.⁷⁴⁾

그러나 계급의식을 한 차원 더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초월의식이다. 초월의식이란 순수 인간의 본능에서 일어 나오는 초동물적(超越動物)·초상대적(超相對的) 의식을 말한다. 이 의식이 충익(充溢)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사회 창조적 생명을 파지(把持)할 수 있음을 이돈화는 강조했다. 계급의식은 사회제도의 반

71) 이돈화, 위의 글, p. 5.

72) 이돈화가 말하는 기계의식이란 곧 노예의식을 말한다. 이는 의식의 작용이 자유와 창조적 본능을 잃어버리고 어떤 특권이나 물질의 노예가 된 것을 말이다. 오늘날 貧富 관계에서 빈자(貧者)의 의식이 대부분 노예적 굴종의식으로 기계화하고, 또한 덕치(德治)의 사람성을 소실하며 물치적(物治的) 소유욕의 노예가 된 점에서 貧富 모두가 기계적 노예의식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기계의식은 인간이 물질을 사용하는 의식이 아니라 물질이 인간을 사용하는 의식이다. 물질이 주체가 되고, 인간은 객체가 되며, 인간으로써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써 사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계의식이 발호하는 시대는 인간 역시 동물로 화하고, 인간은 타락과 멸망을 내비치는 것이 된다.

73) 이돈화, “사람성과 意識態의 關係, 「機械意識」 「階級意識」 「超越意識」,” p. 6.

74) 이돈화, 위의 글, p. 6.

영으로부터 생겨나는 의식이지만 초월의식은 ‘우주적 생명’, ‘인격적 생명의 총동본능’으로 생겨나는 절대의식인 것이다. 즉 창조적 본능으로 일어나는 의식이고 인간을 광제(廣濟)하고자 하는 의식이다.⁷⁵⁾ 이돈화는 물질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차원도 포함하는 것이 사회개조임을 부각시키고자 했고, 계급의식에서 초월의식으로 넘어가고자 했다. 초월의식은 계급의식을 고조시킨 마르크스의 정신 중에도 그 무궁성이 약동되었음을 명력(明歷)하게 볼 수 있다 했고, 현대사회의 지도자는 이 초월의식의 수양을 가져야 하며, 현대 인간은 한 걸음 더 초월의식의 계급으로 나가야 함을 그는 제기했다.⁷⁶⁾

세상에서 解放을 논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의 다른 견지로써 이를 討究하게 되나니 하나는 內(心)의 解放으로부터 外의 解放을 얻는다 하는 사람과 하나는 外의 解放으로부터 內의 解放을 얻는다 하는 사람이였다. 內의 解放이 잇서야 外의 解放을 얻는다 하는 말은 즉 사람도 모든 것이 精神上 觀念으로 外界의 형식을 짓는 것인즉 內의 즉 心の 解放이 업는 사회에는 결단코 外的 즉 형식의 解放을 엿지 못한다 하는 것이라. 가령 내가 外國에 漫遊를 하고저 하면 먼저 마음으로부터 外國에 漫遊하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면 實地의 遊行이 개시되야지 아니한다는 말이며 다음은 外의 解放이 업스면 內의 解放을 엿지 못한다 하는 것은 칼 맑스의 唯物觀과 가튼 것이 가장 그 적당한 것이니 그네들은 이르되 사람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결코 독립하여 생기는 물건이 아니요, 外界의 모든 사실이 필경은 一民族의 심리, 一個人의 심리를 구성하는 것이라 한다. 그럼으로 현대 우리 인류의 심리라 하는 것은 屢千年間 흘러온 사회제도가 스스로 今日 우리들의 심리가 된 것이라. 그럼으로 今日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심리를 改造하고저 하면 도저히 심리 單獨 其者로써는 개조가 되는 법이 업고 그 심리를 構造한 중대원인 되는 外界의 사회제도를 개조치 아니하면 아니된다 하는 것이라. 이상에 말한 두 가지의 견지가 각각 일종의 진리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업는 것이니 논하자면 心的 解放과 身的 解放이 兩兩併行하여 나아가는 것이 진정 解放의 방법을

75) 이돈화, 위의 글, p. 6.

76) 이돈화, 위의 글, p. 7.

있는 자라 하리라.⁷⁷⁾

한편 김기전은 프랑스의 정치혁명, 러시아의 경제혁명, 인도의 진리·무저항의 혁명 등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최후의 혁명이 바로 조선에서 나올 것이라 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원리는 ‘주의적 단결’에 있다고 말했다.⁷⁸⁾ “주의의 단결이란 유일한 표준점”을 뜻한다. 이는 곧 만인이 공명할 수 있는 “개벽의 대 이상(大理想)”⁷⁹⁾이다. 만약 이 표준점이 없이 문화운동을 말하고, 민족일치를 말하며 대등단결을 말한다면 이는 흘러가는 물에 글씨를 쓰는 것과 같다고 했다. 주의적 단결은 조선민중을 정치적/경제적 방면에서 구출하는 유일한 힘이고, 현재의 교육운동이나 산업운동도 이러한 정신 밑에서 활동할 때에 의미가 있게 된다. ‘개벽의 대 이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무궁히 변천되어 가는 해방이고, 끊임없이 향상되어 가는 계급의식이자 초월의식이며 개인과 전체, 만인을 관통하는 공뇌(公腦)의 작용이다. 여기에는 정신과 물질, 자유와 평등, 개인과 사회를 이분화 시키지 않고, 전체 공동체와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각자의 개성을 개조의 주체로 삼는 동화사상이 깔려 있다.

V. 결론

조선의 사회주의 수용에는 러시아 혁명의 성공과 피압박민족에 대한 레닌의 지원, 중국 신문화운동과 사회운동의 전개, 그리고 일본 사회주의자들에 의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의 국내 소개가 상호 연동되었다. 조선의 사회주의 수용은 민족해방에 방점을 둔 동북아시아의 연동이자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1920년대 중국이 사회혁명을 지향해갔던 것은 서구 국가체제에 대한 환멸, 러시아 혁명이 중국인의 진보적 각성을 촉진시킨 것, 해외로부터 사회주의 신

77) “煽動的 解放으로부터 實行的 解放에 解放號 첫머리에 쓰는 것이라(논설).” 『개벽』 32, 1923, pp. 3-4.

78) 묘향산인 考, “제1의 해방과 제2의 해방, 인류역사상의 2대해방선언.” 『개벽』 32, 1923.

79) “民族一致, 大同團結을 云爲하는 이에게(논설).” 『개벽』 35, 1923, pp. 15-17.

사상이 전파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쑨원, 천두슈, 리따 자오가 있었다. 당시 이동곡을 비롯한 조선 천도교는 쑨원을 중국 사회주의 제창자로 인식했고, 그의 삼민주의를 자본 제국주의로부터 중국민족을 해방하는 민족주의, 중국혁명에 부응하는 민권주의, 토지균분과 자본절제를 실행하는 민생주의로 이해했다. 또한 쑨원은 레닌이 그러했던 것처럼 반제국주의의 연대를 형성하여 피압박 민족의 대 동맹을 이루자 했고, 노농 러시아에게는 중국과 함께 피압박민족의 승리를 위하여 맹진하자 했다. 조선 천도교 역시 그 대열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고, 아울러 혁신의 대의를 품고 분투를 지속해 온 집단은 바로 동학당임을 자부하면서 중국에 국민당이 있다면 조선에는 동학당이 있다고 했다.

천도교의 사회주의 수용은 동학의 인내천주의에 입각해 있으면서도 자본제국주의 타파라는 계급투쟁을 주시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기전, 이돈화 등이다. 김기전은 인류역사상의 2대 해방선언, 즉 정치적 인권선언과 경제적 기본권의 선언을 재 호명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해방의 역사’라 하였다. 또한 만국 무산자의 날로서 메이데의 유래를 말하면서 전 세계의 자본가 계급에 반항하는 무산계급운동의 확대를 예견했다. 이돈화 역시 계급의식을 고취하고 무산자운동을 확대하는 신문화건설을 지향했다. 신문화운동은 곧 신사상운동으로서 불평등과 차별의 사회모순을 타파하고자 하는 계급의식에 입각해 있었다. 여기서 계급의식이란 계급의 모순을 인식하여 스스로 고치고자 하는 의식이다. 천도교는 조선적 처지와 상황에 맞게 사회주의를 변용시켜나갔다.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농민이 절대 다수이고 노동자가 소수인 상황에서 조선의 계급운동은 농민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조선청년총동맹을 운동의 주체로 삼는 노농운동에 중점 두어졌다. 마르크스가 말한 “계급투쟁의 역사”,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해방의 역사”, “만국의 무산자여 단결하라!”로 강조되었다. 조선 계급의식의 원천은 갑오동학혁명에서 비롯되며 동학의 계급의식이란 처음부터 혁명적 수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내천 주의로 들어가 창조정신과 상호연대의 사상으로 형성되는 계급의식이었다. 요컨대 천도교의 노농운

동은 무산청년동맹인 조선청년총동맹이 선봉이 되고 ‘사람성 무궁’에 뿌리박는 사상적 단결과 전체 인민의 의사에 의한 민중 문화주의 정치를 지향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최후의 혁명은 조선에서 나올 것이고, 그 혁명의 원리는 유일한 표준점이자 만인이 공명할 ‘개벽의 대이상(大理想)’에 두어졌다.

참고문헌

- 김택호, “천도교와 아나키즘의 결합: 조선농민사 기관지 『조선농민』과 『농민』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제21집, 2011.
- 박명규, 『국민인민시민』, 서울: 소화, 2009.
- 박상환·이재규, “중국 근대 법사상의 혁신 지향성과 그 한계.” 『인문학연구』 제83집, 2011.
- 박종린, “1920년대 초 공산주의 그룹의 맑스주의 수용과 유물사관요령기.” 『역사와현실』 제67집, 2008.
- 박종린, “1920년대 초 반자본주의 사상과 대중시보사 그룹,” 『한국사상사학』 제47집, 2014.
- 심경수, “소련헌법의 원형: 1918년 러시아 사회주의연방 소비에트 공화국헌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1권 1호, 1990.
- 안건호, “조선청년회연합회 조직과 활동.” 『한국사연구』 88집, 1995.
- 정혜정, “천도교 '수운이즘'과 사회주의의 사상논쟁.” 『동학연구』 제11집, 2002.
- 정혜정, “이돈화의 인내천주의와 서구근대철학의 수용.” 『동학학보』 제19집, 2010.
- 조경란, “중국 맑스주의 수용의 초기적 특징: 천두슈와 리따짜오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제13권, 1990.
- 조경란, “리따자오의 맑스주의 해석.” 『중국지식네트워크』 제6권, 2015.
- 천두슈 지음, 심혜영 옮김, 『천두슈 사상선집』, 부산: 산지니, 2017.
- 『개벽』, 『공제』, 『대중시보』, 『독립신문』, 『동아일보』, 『아성』, 『중외일보』

Abstract

Socialist Linkages and Choseon New Culture Movement of Northeast Asia in the 1920s
: Focus on Gaebyeok(開闢) of the Cheondogyo(天道教) Magazine

Hyejung Jung (Research Professor, Wonkwang University)

In the 1920s,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tended to combine class liberation and national liberation by linking socialism under the confrontation of capital imperialism vs. the proletarian class, oppressed people, and oppressed nations. Choseon's acceptance of socialism began in the late 1910s, but the officially confirmed document originated in the 1920s Cheondogyo magazine Gaebyeok. Lee Dong-gok(李東谷), who acted as a correspondent for Gaebyeok, introduced China's new-culture movement and social revolution to Korea. Kim Ki-jeon(金起田) and Lee Don-hwa(李敦化) adapted the Chinese social revolution and Russian socialism to suit the Choseon status and situation. With farmers accounting for 90% of the population and a small number of workers, the class movement in Chosun called for awakening of farmers. In addition, it developed a peasant movement that made the Choseon 'Youth Union' a mainstream of movement. Also, Marx's "history of class struggle" was called "history of human liberation." And "Workers of all nations unite!" changed to "Proletarian of all nations unite!" It was argued that the source of class consciousness stems from the Donghak(東學) revolution. Class consciousness was not based on revolutionary means from the outset, but on the basis of universal consciousness first entering into Innaecheon thought and forming into a spirit of creation and mutual solidarity. The subject of movement of the Choseon liberation was unity of the Choseon Youth Union, the proletarian Youth, and the roots of the "Infinity of human nature" and the culturalist politics of the whole people. Thus, the last revolution would come out of Choseon. And the principle of the revolution lies in the "great ideal of the Gaebyeok" that everyone will resonate.

Key Words: Northeast Asia, Communism, New-culture Movement, Cheondogyo (天道教), Gaebyeok(開闢), Class Consciousness

투고일: 2019년 10월 24일, 심사일: 2019년 12월 6일, 게재 확정일: 2019년 12월 23일